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한국조선 ·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내년 1월로 미뤄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1월 중순에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달리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협의도 필요해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도됨. (경향신문)

### 현대重 · 미포조선, 7년 만에 정규직 뽑는다…내년 채용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 신규채용 및 협력사 직원 직영 전환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현대중공업그룹의 누적 수주액이 140%를 초과하며 2022년까지 5,000여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경상일보)

### MSC confirms container ship options but flips fuelling choice

MSC는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신조선에 LNG추진 엔진을 탑재하기로함. 2021년초 발주된 선박 중 일부도 LNG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함. (Tradewinds)

### Maersk, 첨단 친환경선 공개

Maersk가 16,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선보임. 이종연료 추진 시스템으로 메탄을 연료를 사용시 동급 선박대비 컨테이너당 연비를 -20% 개선할 수 있음. 2024년부터 현대중공업이 8척을 인도할 예정임. (선박뉴스)

### Costamare orders eight container ship newbuildings, confirms bulker expansion

Costamare는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 컨테이너선 13,000TEU급 4척, 15,000TEU급 4척을 발주함. 2척은 2023년 3분기-2024년 1분기 사이 인도될 예정이고, 나머지 6척은 옵션분임. 과거 2018년 마지막 발주는 중국 Jiangsu Yangtze강 조선소에 주문함. (Tradewinds)

### US liner regulation closer to approval despite shipping's object

개정해운법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상원, 대통령 승인까지 진행되면 선사들의 체화료 책정 내용 증명, 분기별 FMC 컨테이너 수출입물량 보고 등이 선사에 요구됨. (Tradewinds)